

한국서부발전(주)

발전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야심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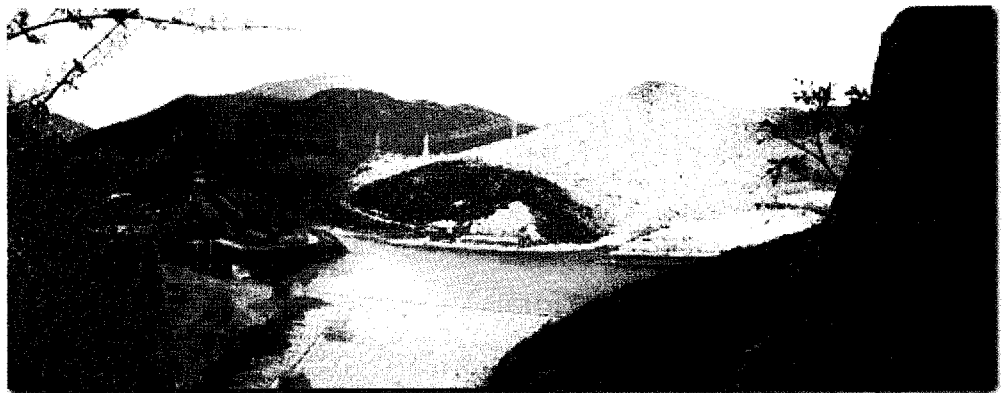
이영철 사장 취임 100일(2002.10.30)을 맞아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기업과 구성원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더 크게 기여하여 세계적인 발전회사로 약진해 가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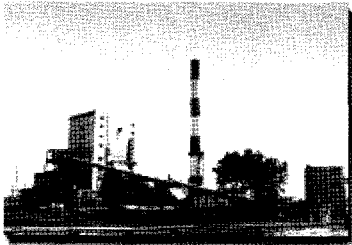
이 영 철 사장

한국서부발전(주)은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발전회사로, 2002년 6월말 현재 자산규모가 국내 30대 기업수준인 3조 791억원, 부채비율 86.2%, 금년 상반기 매출액 9,317억원에 순이익 1,085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초우량 기업이며, 창사 1년반 만에 이룩한 많은 경영성과와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전직원이 하나되어 추진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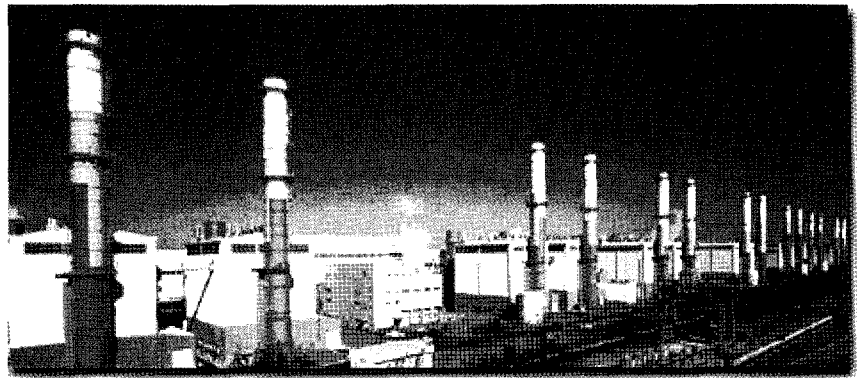
서부발전은 태안, 평택, 서인천, 삼랑진, 군산 등 5개 발전단지에 총 735만k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60억kWh의 전력을 생산, 전력거래시장을 통해 필수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체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삼랑진 양수(상부저수지)



군산화력전경



서인천 복합화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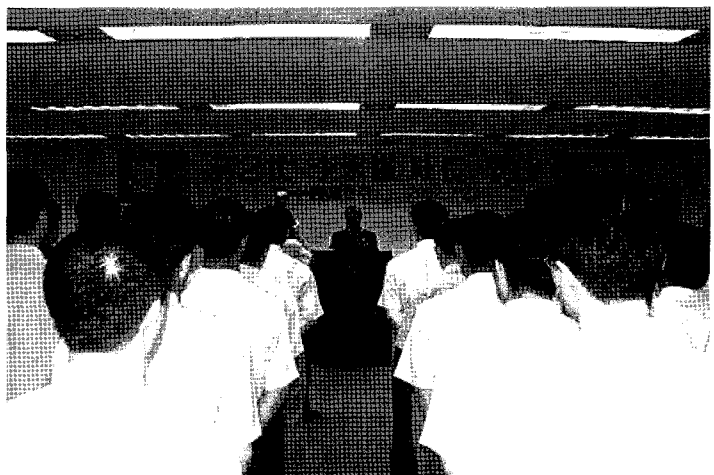
21세기 발전산업의 리더를 향한 비전 제시

이영철 사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식에서 “이 시간부터 저는 서부의 비전인 21세기 발전산업의 리더를 향해, 보람과 희망의 일터에서 전직원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한 경영의지를 피력하였다.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파업가담자에 대한 징계조치 해제, 사업소 순회 경영현안 설명회, 경영진·직원간 ‘도시락간담회’ 개최, 발전소 야간교대근무 체험과 현장대화 시행 등으로 조직갈등, 노사갈등을 단기간에 치유하고 내부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와 대화, 협력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장은 향후 경영방향과 관련하여 발전회사 민영화와 전력시장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 경영혁신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발전회사의 기본 책무인 모든 발전설비의 최적운영에 전력을 기울이며, 고객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사장 취임 100일을 맞아 “10년 후 서부발전의 모습인 희망의 미래는 조직이 내실있게 발전해 가는 가운데 그 구성원이 더불어 성장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가정이 행복을 구가하는 실체적 모습”이라고



이영철 사장 취임식

정의하고, “이 시간부터 노와 사, 모든 구성원이 서로 믿고 화합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 가자”면서 희망의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시 新경영혁신활동 전개

서부발전은 조직화합과 내부역량 결집을 토대로 도소매경쟁시장 이행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신경영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장의 경영방침인 수익위주경영, 현장중심경영, 직원만족경영에 대한 7대 중점과제, 132개 세부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전직원이 1개 이상의 과제 추진반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新경영 혁신의 날’로 지정하여 업무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사업소 평가대회와 전사 평가대회를 시행함으로써 신경영혁신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운동(ACOPS 전략)을 전개중인데, 최선 업무(Leading Action), 최저 원가(Low Cost), 최적 운영(Optimal Operation), 최대 수익(Big Profit), 최대 만족(High Satisfaction) 등 5대 부문 50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고,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술혁신운동을 통해 발전설비 운영 및 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높여 가고 있다.

서부발전은 신경영혁신활동을 통해 민간기업형 경영시스템 조기구축과 기술경쟁력 제고로 민영화 등 향후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협력적인 신 노사문화 정립을 통해 국내 산업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수익위주 경영으로 기업가치 높여

서부발전은 비효율적인 경영요소를 제거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 1원/kWh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투자, 판매전력량 증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4대 부문에 걸쳐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매월 실적 분석과 Feed-back을 통해 금년에 347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타 발전회사보다 앞서 획득한 국내 신용등급 AAA, 해외 신용등급 BBB+ 를 바탕으로 양질의 국내외 자금을 조달하고 다양한 헷지기법 활용, 자체딜링 등을 통해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전산업의 태안 석탄회 정제공장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석탄회, 탈황석고, 중수도 및 배수 등 발전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기자재 조달분야에서는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 해제 및 정부조달협정 발효후 최초로 청송양수 1, 2호기 주기기를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517억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태안화력 5, 6호기 건설공기를 사내외 인력의 유기적 운영 등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해 4개월여 단축함으로써 652억원의 추가 판매수익을 실현하였다.

또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연료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유연탄의 경우 국제자원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연료유 조달과 관련해서는 국제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발전회사의 기본사명은 발전설비의 안정운영에 달려

이영철 사장은 평소 “서부발전의 존재가치는 최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발전설비를 최적상태로 유지하는데 모든 서부가족들의 생각과 행동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발전산업 종사자로서의 기본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비관리기법을 개선하여 운전시간 위주 정비방식에서 설비상태를 고려한 정비방식으로 전환하여 설비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계획예방정비공기도 조정 운용하고 있다.

또한, 열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설비의 성능 개선, 고효율기기 채택, 실시간 최적 성능관리시스템 구축, 정밀 연소시험 실시 등을 통해 열효율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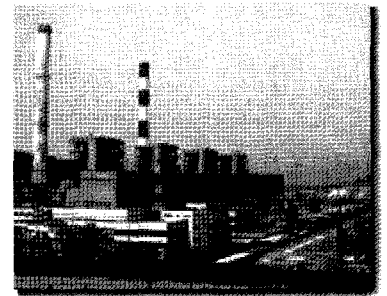
청송양수(건설중)

발전소 적기 건설로 전력 안정공급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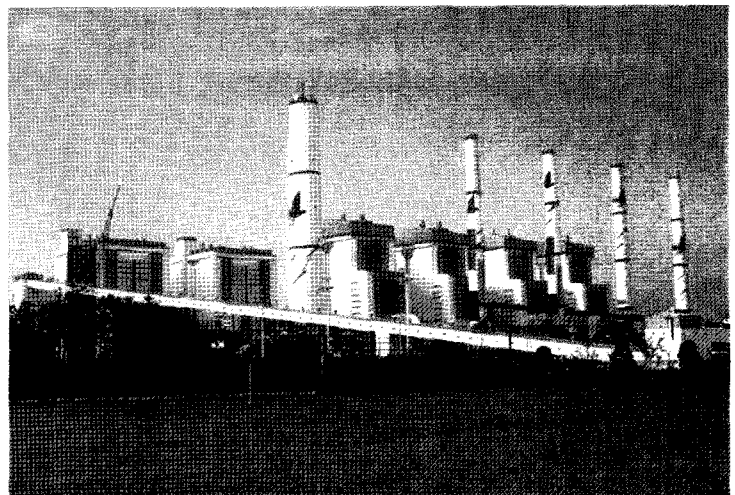
서부발전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수익성에 치우치다 보면 전력안정 공급의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음을 인식, 발전설비 적기 확충을 위해 발전소를 조기에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발전소 적기 착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중인 청송양수 1, 2호기는 60만kW로 2006년 12월 준공예정이며 10월말 현재 4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태안 화력 7, 8호기는 100만kW로 2008년 3월 준공목표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서부발전은 현재보다 20.8% 증가한 888만k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고가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평택화력의 발전연료를 저가의 고유황유로 대체 사용하기 위해 탈황설비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며, 2004년 12월 준공되면 연간 271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게 된다.



평택화력



태안화력 전경

선진 품질 · 환경경영체제 구축으로 고객만족과 업무표준화 도모

서부발전은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태안화력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것을 계기로 선진 품질 및 환경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SO 9001은 태안 이외에 본사와 운영중인 4개 발전소가 전부 획득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태안화력, 군산화력에 이어 평택화력과 서인천복합도 지정받기 위해 지역환경과 조화되는 발전소 운영에 힘을 기울이는 등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고객만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윤리경영은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범적 판단과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며, 기업의 책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우선적인 경영가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사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강령인 「서부인의 신조」를 사장 취임 100일에 맞춰 제정, 전 임직원의 실천서약을 받고 윤리사무국을 두어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서부인의 신조」는 고객에 대한 책임, 사회공동체 및 사업관계자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 등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직원이 서부인의 신조를 실천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 지역사회중시경영, 직원중시경영, 수익중시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창조적인 인재육성과 「2002 아이디어 경영대상」 수상

서부발전은 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인재 확보와 육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 바람직한 직원상으로 창조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 Specialized Generalist로 설정하고 직원채용, 교육훈련, 승진 등 인사제도 전반을 혁신해 가고 있다.



2002 아이디어 경영대상

직원 채용은 인터넷 Recruit 방식과 병행하여 상시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국내외 전문분야 위탁교육을 확대 개편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Cyber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을 초빙하거나 전문학원을 통해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역량 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선진기업의 경영전략 및 신기술 도입 관련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영진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의 유명대학원의 AMP, MBA 과정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력운동을 위해 필요한 직책에 사내공모제를 도입하고, 간부승격제도를 업적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발탁승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있다.

그리고, 조직활력과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포상과 국내의 교육 및 연수, 서클활동과 문화활동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선진 복지수준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발전소별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한 직원들을 중간부화하고, 사무실과 사택환경을 개선하며, 경영진과 본사 간부들의 발전소 야간교대근무체험 등을 통해 상호간 이해기반을 넓히고, 현장의 개선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즉시 반영하는 한편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민간발전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원역량 및 조직활력 향상 노력은 지난 9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2002 아이디어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희망의 미래구현 전략발표

사장 취임 100일을 맞아 희망의 미래로

서부발전은 지난 10월 30일 이영철 사장 취임 100일을 맞아 향후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업과 구성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세계 속의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발전전략인 「희망의 미래」 구현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적의 사업구조 구축, 핵심역량 강화, 환경탄력형 경영시스템 구축, 윤리경영 실천, 구성원 만족 실현,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 등 6대 전략방향과 40개 중장기 지표를 설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 세계적인 기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다

서부발전은 창사 원년에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을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실천함으로써 발전회사 경영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제 서부발전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명실공히 21세기 발전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서부발전이 단기간에 이룩한 경영성과와 구성원의 현재 역량에 안주하지 않고, 남보다 앞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감으로써 전력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